

지난 1년 동안 미국 Ohio State University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김혜원입니다. 이 수기가 앞으로 교환학생을 갈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.

1. 여행을 많이 다니세요.

제가 다녀온 OSU는 쿼터제로 일 년에 3학기로 나뉩니다. 짧은 방학 두 번과 한 달 정도 되는 겨울 방학이 있는데, 저는 매번 방학 때마다 여행을 다녔습니다. 특히 겨울 방학에는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했는데, 그 경험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. 여행을 다니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게 되었고,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았습니다.

2. 한국 친구를 사귀세요.

그렇다고 한국 친구들과만 어울려서 놀라는 뜻이 아닙니다. 어느 환경에서든지 적응을 잘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, 1년 동안 먼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국이 너무 그리고 속 시원히 터 놓고 한국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.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요, 지금 생각해보면, 교환학생을 가서 한국친구를 세 명 정도 사귄 것 같습니다. 특히 한 친구는 같은 기숙사에 살아서 같이 한국 음식도 해먹고, 이것저것 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면서 우울함을 날려버린 기억이 있네요. 1년 내내 영어만 쓰다가 가끔 한국말을 하면 정말 속이 땡 뚫리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.

3. 영어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.

저는 처음부터 교환학생을 갈 때 '영어를 마스터해와야겠다!'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.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을 수 있는 1년 동안 한 언어를 마스터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, 너무 나 자신이 영어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으면 더 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. 그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었고,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데에 더 비중을 쏟았습니다. 하지만 1년 내내 외국인들과 어울리다 보니 영어는 저도 모르는 순간 자연스럽게 늘어있었습니다.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, 자신감을 가지고 입을 열다 보면 어느새 늘어 있는 영어실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있는데요, 저는 왠지 이 방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오하이오로 돌아가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항상 느낍니다. 그만큼 그 곳에서 어울렸던 친구들이 너무나도 그리고, 그곳 생활이 즐거웠습니다. 크게 아프지 않고 큰 사고도 없이 무사히 돌아온 것 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지만, 저는 정말 다시 돌아

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. 특히 교환학생 모임을 자주 갖다 보니 여러 나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 졌는데, 이렇게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사귀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, 우리 나라를 더 많이 알리는 기회가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.

제 주위에는 어학연수나 워킹홀리데이를 간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, 교환학생은 정말이지 어학연수와 워킹홀리데이와는 차원이 다르게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. 어학연수를 간 친구들은 대부분 그 나라의 국민들을 잘 만나지 못하고, 영어를 공부하러 온 다른 나라 친구들을 더 많이 사귀니다. 워킹홀리데이 또한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고, 호주면 호주, 캐나다면 캐나다 국민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저는 질리도록 미국인들을 많이 만났고, 착한 친구들 덕분에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돌아왔습니다. 특히 한국 대학과는 너무나도 다른 미국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1년 동안 하면서 이제는 좀 더 타 문화를 자연스럽게 수용할 수 있는 능력(?)이 생긴 것 같습니다.

교환학생으로 산 지난 1년은 저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입니다.